



# Choo

신수

## 14호 홈런



# Ryu

현진

## 8승 수확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후반기 첫 등판에서 시즌 8승째를 올렸다. 추신수는 시즌 14번째 홈런을 날리며 1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류현진은 23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방문경기에서 선발 등판, 5.1이닝 동안 9안타를 맞고 4실점했다. 볼넷은 2개를 내줬고 삼진 3개를 잡았다. 병살도 2개를 유도했다.

4실점을 했지만 타선의 도움으로 지난 6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 이후 두 경기 만에 시즌 8승(3패)째를 수확했다.

전반기 마지막 등판 경기 이후 12일 만에

### 메이저 리그, 코리안 데이... 28일 다저스타디움서 추·류 맞대결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은 102개의 공을 던졌고 이 가운데 스트라이크는 64개였다. 지구 최고 구속은 시속 93마일(약 150km)이 찍혔다.

류현진은 10-2로 앞선 6회말 1·2루에서 호세 도밍게스와 교체됐다. 이후 두 명의 주자가 모두 홈을 밟으면서 4실점이 됐고, 평균자책점은 3.09에서 3.25로 높아졌다.

다저스는 A.J.엘리스와 스킵 슈마커가 홈런포를 터트리며 각각 5타점, 3타점을 기

록하는 등 장단 16안타를 몰아쳐 시즌 최대 득점으로 토론토를 14-5로 대파하고 4연승을 달렸다. ‘8승 사냥’에 성공한 류현진은 “스트라이크든 볼이든 너무 타나는 공이 많아서 어려웠다. 투구수도 이닝당 20개 정도로 많았다. 컨디션은 크게 나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안타를 많이 맞았다. 앞으로 안타를 적게 맞는 경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8승을 기록한 만큼 목표(10승)를 높여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시기 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류현진은 시즌 8승을 달성했지만 10승에 도달하려면 2승이나 남았다면서 “아직은 목표를 상향 조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응원전에 나서 한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류현진은 “생각보다 많이 와줘서 힘이 됐다. 때마침 타선이 잘 터져 줬다. 다른 곳에서도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추신수의 활약도 계속됐다. 추신수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AT&T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방문 경기에서 솔로홈런을 포함해 4타수 2안타를 쳤다. 16경기 연속 안타로 자신의 기록을 늘리며 시즌 타율을 0.294로 끌어올렸다.

1번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한 추신수는 1회초 샌프란시스코 선발 팀 린스컴을 상대로 좌익수 쪽 2루타를 치고 나갔다. 팀이 4-0으로 앞선 2회에는 시원한 솔로

야치를 그렸다. 추신수는 볼을 하나 걸러낸 뒤 시속 143km짜리 투심 패스트볼을 밀어쳐 왼쪽 담장을 넘겼다. 지난 15일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던 애크랜타전에서 13번째 홈런을 날린지 8일 만이다.

4회초 중견수 뜬공에 이어 5회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선 추신수는 6회말 수비 때 하비에르 파올라 교체됐다.

신시내티는 선발 브론슨 아로요의 완봉투와 함께 타선이 홈런 3방을 포함, 17안타를 날리면서 11-0으로 크게 이겼다.

한편 류현진과 추신수는 오는 28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경기에서 한국인 투·타 맞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 북녀들의 환상연기

북한 선수들이 2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플라우 세인트 호르디 수영장에서 열린 2013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싱크로나이즈드 수영 테크니컬 결승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KIA 전반기 홈 35경기 관중 33만7215명 찾았다

무등경기장 지난해보다 4% 증가

무등경기장의 입장 관중이 4%가 증가했다.

올 시즌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전반기 홈 35경기에 33만7215명이 찾았다. 지난해 동 경기수 대비(32만3715명) 4%(1만3500명)가 증가한 수치다. 평균 관중은 9635명으로 지난해 7493명에 비해 29%가 증가했다.

홈 개막 2연전에 이어 지난 4월 삼성과의 주말 3연전에 모두 만원 관중이 들어서는 등 매진도 11차례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4경기 만에 만원 관중이 찾았다. KIA의 역대 최대 매진 기록은 V10을 달성한 2009년에 세워진 21회다.

9구단 체제로 인해 경기 수가 지난해 133경기에서 128경기로 줄어들었지만 치열한 순위싸움 속에 60만 관중 돌파에 청신호가 켜졌다.

60만 관중에 26만2785명을 남겨둔 후반기 홈경기는 29. 전반기 평균 관중 수로 따지면 앞으로 27만9415명이 더 경기장을 찾아 KIA가 올 시즌 목표로 내세운 60만 관중 돌파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60만은 구단 최초로 2011년 집계된 59만

2653명이 역대 구단 최대 관중이다.

3월30·31일 개막 2연전을 포함한 4월(11경기)에는 유난했던 북추위에도 10만9889명이 찾아 평균 관중수가 9991명을 기록했다. 5월에는 경기당 평균 1만130명(12경기·12만1554)이 불날 그라운드를 즐겼다.

6·7월에는 성적 하락과 장마가 겹치며 12경기에 10만5763명이 찾아 평균 관중수가 8814명으로 푹 떨어졌다.

김진우는 자신의 선발 등판에서 세 차례 만원 사례를 장식했다. 김진우가 등판한 7경기 평균 관중은 1만472명. 역시 3차례 만원 관중 앞에서 공을 던진 양현종의 선발 경기(7)의 평균 관중은 1만234명에 이른다. 매진을 이뤘던 개막 두 번째 경기의 선발 서재응은 3경기에 평균 1만229명을 불러들였다.

윤석민(6경기·매진 2) 등판에는 평균 9628명, 소사(7경기·매진 1)의 경기에는 평균 9225명이 찾았다. 임준섭은 4차례 등판에서 평균 8035명의 관중을 기록했다.

한편 KIA는 관중 동원을 위해 지역 내 기업·학교 등을 방문하는 이벤트인 ‘호돌이 익스프레스’와 K레이스·3루서 응원단 공연 진행 및 네임데이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 하반기 선전 기원 이벤트

KIA 타이거즈가 하반기 선전 기원 홈페이지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 이벤트는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하반기를 맞아 팬들이 듣고 싶은 3대 뉴스를 직접 작성해 응모하면 된다. 3대 뉴스는 긍정적이고 재미와 희망이 담긴 내

용이면 된다.

접수는 내달 5일까지 KIA 홈페이지(www.tigers.co.kr)를 통해 이뤄진다.

KIA는 응모자 중에 30명을 선정해 각각 유니폼 10벌과 모자 10개, 글러브(상품)10개를 증정한다. 당첨자는 8월9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